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세르비아, 친러 국가에서 중립으로?

이하선

박사수료, 러시아·CIS 정치 전공
hasunlee@hotmail.com

러시아와 세르비아, 범슬라브주의 형제국

남슬라브족인 세르비아와 동슬라브족인 러시아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며 정교회를 신봉하는 '슬라브 형제국'이다. 2021년 11월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세르비아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정신적, 문화적 유대를 특별히 강조했다. 양국의 공유 가치관인 '범슬라브주의(Pan-Slavism)'는 기독교 정교회, 슬라브 세계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단결과 연대의 이데올로기다. 범슬라브주의는 독일에 맞선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세르비아의 전우애, 소련의 2차대전 승전 신성화를 비롯해 오늘날에는 동(러시아)·서(EU(유럽연합)·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대결 구도에서 친러시아 성향으로 표현된다.

부치치 집권기에 범슬라브주의는 슬라브 세계에서 러시아의 주도성을 인정하며, 비슬라브 세력을 '타자'로 간주하는 반서방적 정서로 연결된다. 2022년 3월 24일 베오그라드에서 극우 민족주의자 1,000여 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러시아로 통하는 하늘길을 모두 틀어막은 유럽 대다수 국가와는 달리 세르비아는 정기 비행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친러 성향은 코소보 전쟁(1998~99)에서의 트라우마, 즉 NATO의 무차별 폭격에 대한 깊은 반감과 관련이 있다.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러시아는 세르비아 편에 서서 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며 NATO의 공습을 격렬히 비난했다.



그림 1) 2019년 푸틴과 부치치 대통령의 회담

세르비아가 친러 성향을 보인 현실적 이유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속한 집권 여당 세르비아 진보당은 친러시아적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세르비아 공산당과 세르비아 수호자당(SSZ) 역시 친러, 반서방을 외치는 대표적인 극우 정당이다. 부치치 정부는 민족주의 성향의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통제된 언론을 통해 친러시아 서사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현실적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정치적 측면에서 취약한 권력의 공고화다. 부패 스캔들과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부치치 대통령은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를 내세워 민족주의자, 반서방·친러 세력들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부치치 정부가 RT Balkan(Russia Today), 스푸트니크(Sputnik)와 같은 세르비아 소재 러시아 언론을 지원하며 친러적 서사를 확산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이유다.

둘째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세르비아의 후견 세력으로서 강대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가치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르비아 내 분리주의 지역 코소보의 독립을 차단하는 국제적 우군이다. 범슬라브 연대국인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코소보의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가입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자이다. 러시아는 서방과 달리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세르비아의 영토적 통합성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셋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유치다.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은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축소 또는 중단했지만, 세르비아는 우호적 조건으로 3년(2022~2024)간 중단없는 공급을 보장받았다. 세르비아의 경제 활성화에 러시아계 자금 유입도 중요하다. 2022년 세르비아에 대한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1년 대비 5~6억

유로로 급증했다. 세르비아 사업자 등록국(APR)에 따르면 러시아 이민자 소유 사업체 수는 2021년 2,000개에서 6,000개로 늘어났다. IT 분야에서도 러시아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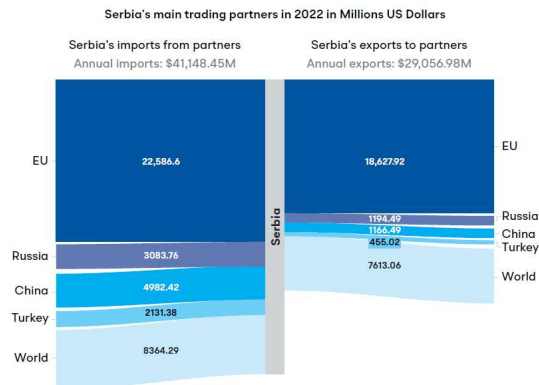


그림 2) 2022년 세르비아의 주요
교역국과 교역액(단위: 백만 달러)

세르비아의 갈지자 외교 행보

세르비아는 슬라브 동질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대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서구 세계인 유럽연합(EU)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향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정학적 현실주의 측면에서 러시아의 반대편에 있는 EU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은 세르비아에 외교적 딜레마를 안겨준다. 부치치 대통령은 국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르비아가 처한 외교적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세르비아는 유럽 통합을 지향하는 길에 들어섰다. 또한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세르비아 국민의 85%는 어떤 상황에서도 러시아를 지지할 것이다.”

부치치의 언술은 러시아와 서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고민을 잘 보여준다. 2022년 세르비아의 대외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58.7%였고, 2023년에는 60%를 넘어섰다. 적지 않은 세르비아 국민(40%, European Western Balkans 2024년 5월 조사)도 ‘유럽 공동의 집’ 입주를 원하고 있다. 세르비아가 친러 행보를

유지하면서도 EU 가입 희망과 함께 NATO와의 협력도 모색하는 이유다. 실제로 세르비아는 서구가 요구하는 유럽 통합 프로세스에도 발을 깊이 담그고 있다. 세르비아는 2014년 1월부터 EU 가입 협상을 시작했고, 현재는 더디지만, EU 정회원국이 되기 위한 공식적인 요건을 충족해 가는 과정에 있다. 2017년에는 NATO와 특별 개별 파트너십 행동 계획(Individual Partnership Action Plan)을 채택했으며, NATO 군의 외교적 지위와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세르비아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주둔군 지위 협정까지 체결했다.

세르비아의 외교적 선택은?

세르비아는 여전히 친러시아적 정서가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EU 가입을 위해 대러 제재에 동참하라는 서구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르비아의 신임 총리 밀로스 부세비치는 자국이 대러 제재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런 언술과는 달리 세르비아는 2022년 4월 러시아의 UN 인권 이사국 박탈에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림반도 병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UN 결의안을 지지했다.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도 EU와 서방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이를 두고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서구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중립 정책으로 설명한다. ‘동과 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향후 세르비아가 어떤 외교적 좌표를 설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제성훈 편집인 ■ 전수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acs@hufs.ac.kr TEL ■ 02-2173-2556